

교복 입고 목포 골목길 투어 즐겨요

연희네 슈퍼+시화전골목+옥단이 길 연계 향수 만끽 효자 관광상품 부상...11월까지 '목포문학길' 투어도

고교 시절 교복을 입고 골목길 투어에 나서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목포 골목길 투어'가 효자 관광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목포시는 영화 '1987' 촬영지인 서산동 연희네 슈퍼가 당초 기대와 달리 인기를 끌자 서산동 시화전 골목과 원도심 옥단이 길을 하나의 코스로 연계시킨 새로운 관광 상품을 선보였다.

연희네 슈퍼가 인기를 끈 배경은 영화의 영향도 있지만 주변에 방공호와 북고풍상가 등 색다른 볼거리와 함께 인근 서산동 시화골목과 연계되면서 부터다.

여기에 원도심 옥단이 길까지 더해져 볼거리가 풍성해진다. 특히 연희네 슈퍼 옆에 교복을 대여해주는 곳이 생겨면서 교복을 입고 고교시절 향수를 느껴 보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최근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멀크러시(보통에 반하다), 소확행(소소한 행복)이 유행하면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담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찾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골목길 투어가 흥행하자 목포시는 전담 관광 해설사를 상시 배치하고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도 관광과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달 중순에도 한국관광공사 선정 대학생 기자단(트래블 리더) 25명이 봄 여행주간 프로그램 홍보 취재차 이곳을 다녀갔다.

골목길 투어에 나선 대학생 기자단들은 "통영 통피마을이나 부산 감천마을은 기념품점, 찻집 등이 너무 많아 상업적으로 변질됐다는 느낌이 많지만 이곳은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어 좋고 무엇보다 눈에 거슬

리는 게 없어 신선하다"고 평했다. 이 같은 평가 덕분에 목포시는 대학생 기자단 만족도 조사결과 봄 여행주간 관광 콘텐츠 1위와 해설안내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연희네 슈퍼+시화 골목만으로는 단순한 코스지만 목원동 옥단이 길 투어까지 더해지면서 관광 상품으로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게 목포시 관광과의 분석이다.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옥단이

길은 목마르뜨 거리와 구름다리거리, 김우진거리 등 유달산을 오르는 3개 노선에 19개 거점을 연결한 골목길로 매월 2차례 정기적인 투어가 열리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목포를 찾은 관광객은 6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나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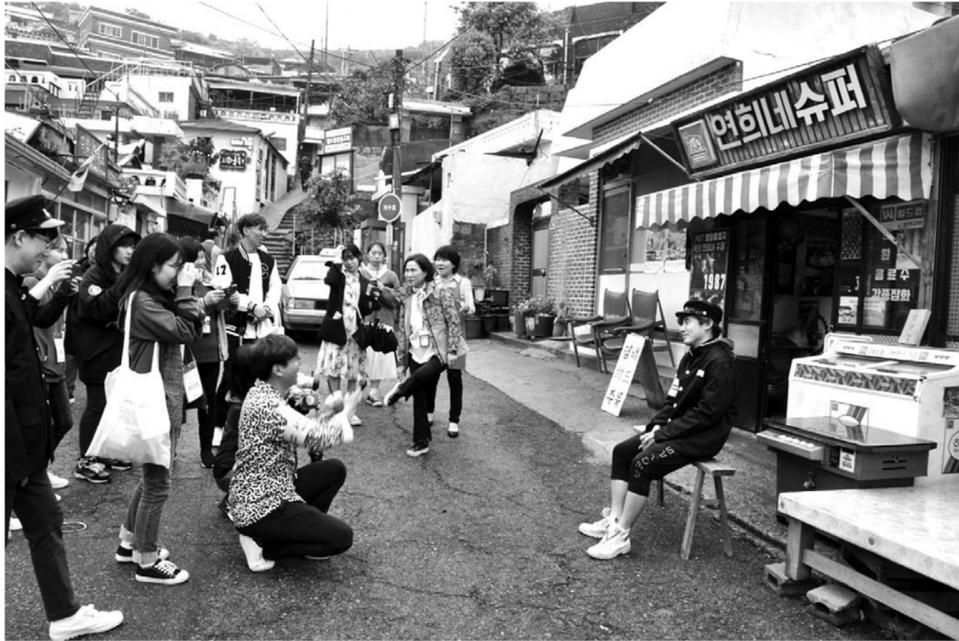
조길현 관광학 박사는 "시화골목이 단순하다는 일부 여론을 반영, 고흥 연흥도처럼 목포 선창에 버려진 폐그물이나 어구, 노, 선구 등 해양 쓰레기를 이용한 설치미술 조형물을 설치해 볼거리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목포시 관광과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앞으로 새롭게 이색적인 콘텐츠를 보완해 1000만 관광객 방문의 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길 투어와 함께 목포문학관 주관으로 오는 11월까지 '목포문학길 투어'도 운영된다.

이 투어는 연희네 슈퍼와 시화골목 투어를 시작으로 목포출신 작가들의 생가와 작품 배경지를 둘러보는 목포근대문학길 및 옥단이 길 투어, 목포문학관 및 목포 문학비 탐방 등 3개 코스로 진행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시가 연희네 슈퍼와 시화전 골목, 옥단이 길을 연계한 골목길 투어 관광 상품을 선보이면서 교복을 입고 고교시절 향수를 만끽해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고용위기 지정 관련 290억 확보

임성~보성 철도건설 등 탄력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현안사업 국비 290억원을 확보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가 의결한 추경 예산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목포지역 현안사업비 290억원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목포 임성-보성 간 철도 건설사업(100억원 증액),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환경개선 사업비(6억원), 소규모 기항지 시설개선사업비(외달도·달리도 20억원), 관광사업 융자지원 사업(100억원), 신규 희망근로 지원 사업(11억3000만원) 등이다.

또 인력양성 및 창업 인프라 지원 사

업(목포대 1억원), 고용위기지역 투자 촉진 정부보조금(37억원 목포·영암), 관광사업 활성화(5억원), 조선사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 사업(10억원) 등도 포함됐다.

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추가 편성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힘써 목포 신항 제2차동차부두 400억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남분소 유치 355억원 등 총 4390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 남항서 검은머리 물떼새 번식 '눈길'

도요새의 기항지로 유명한 목포 남항 앞바다에 천연기념물 제326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 물떼새 <사진>가 카메라 아래 포착됐다.



'갯벌의 신사'라는 별명을 지닌 이 새는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겨울을 보낸 뒤 번식을 위해 중국 동북부 등으로 흩어졌다가, 겨울철이 되면 다시 서해안 일대로 모여든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김석이 학예연구사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결과, 매년 남항에 와서 쉬었다가 가는 검은머리 물떼새는 많게는 40마리 넘게 온 적도 있다"면서 "다육 놀라운 것은 작년부터 한 쌍이 이곳에서 번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알을 3개 낳아서 품고 있는데 조만간 유조들이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은머리 물떼새는 이마와 목이 검은색이고 부리와 다리는 붉은색이며 몸통

아랫면은 흰색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치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시드를 입은 듯 우아한 자태에 붉은 부리가 나비넥타이처럼 보여 연미복을 차려입은 신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한편 남항앞바다는 면적은 좁지만 갯벌이 발달돼 계절별로 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는다. 겨울에는 오리와 갈매기 종들이, 봄과 가을에는 멀리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오는 도요새들이 중간 쉼터로 여름에는 백로, 왜가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해대 '세계로 관' 개관...100% 기숙사 생활 가능

목포해양대는 지난 25일 최첨단 승선생활관 '세계로 관' 개관식을 하고 문을 열었다.

세계로 관 개관으로 재학생 100%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국내 최초 기숙형 국립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개관식에는 박성현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동문 등이 참석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213억원을 들여 건축한 세계로 관은 2038년까지 20년 동안 민간기업이 운영한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1만 2518㎡다.

체력단련실·북카페·공동세탁실·다리미실 등 복지시설과 무선인터넷·냉난방 자동 제어·자동출입 통제시스템 등의 최첨단 편의시설을 갖췄다.

목포대교가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승선생활관에서는 학생 652명이 입주했다.

박성현 총장은 "해사대학, 공과대학, 외국인 학생을 포함해 모든 재학생의 기숙사 생활이 가능해졌다"며 "최고의 글로벌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25일 문을 연 목포해양대 승선생활관 전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1만 2518㎡다. <목포해양대 제공>

'바다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민·관·군 200여명 참여

민관군이 힘을 합쳐 전남 목포항 일대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은 지난 25일 목포시, 해군3함대, 목포해경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목포 허사도 해안가와 군부대 활주로 방파제의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했다.

이번 수거활동은 바다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펼쳐진다. 이 기간에는 전남 서부권 10개 사

군, 목포해경, 해군3함대 등 9개 유관기관과 현대삼호중공업, 목포수협 등 8개 단체 2100여 명이 참여한다.

항·포구, 해안가, 도서 등 19곳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한다.

김평전 목포해경 청장은 "쓰레기 해양 유입을 줄이고 근본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되가

져오기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민 참여와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